

남원시 추석 종합대책 가동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물가안정·특별교통반
비상진료대책 수립 등
민생안정에 행정력 집중

남원시는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어느해 보다 긴 연휴에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사건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전개, 온누리 상품권 구매와 이용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전개

한다. 아울러 남원원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추석맞이 특별행사(지난 19일~10월 3일) 및 수도권 지거래 정터를 운영해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도 힘쓴다. 행복나눔 명절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가 술선수법에 어려운 이웃 돕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물가 특별지도·점검반 민관 합동을 편성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섰다. 명절기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에 따라 터미널 등 주요 정차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 212개소를 개방·운영하여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고속버스

35회(서울↔남원)증회 운행, 임시열차 상·하행 2회/일 증회 운영해 교통수송력을 확충했다. 연휴중에 발생한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당직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소(625-4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청결한 고향이미지 조성을 위해 추석맞이 대청소 운동을 추진하고, 명절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처리를 위해 청소민원 처리반과 특별상황반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주요관광지의 주변환경정비에 나섰고, 연휴기간 중 10.3(화)~5(목) 3일간 광한루원, 테마파크 등을 무료개방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관광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을 전통시장 중점이용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등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가위 대목 맞은 전통시장 살아날까

남원시 - 유관기관 합동
시장이용 캠페인 전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
다각적 활성화 방안 주력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가 술선수법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홍보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황주 시장은 25일 남원시 대표적 전통시장인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일일이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지난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추석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32개 품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상점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을 전통시장 중점이용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등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 등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22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 유관 기관단체들의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오는 26일에는 남원시청 직원들과

가정식 발효소스 "주인공은 나야 나"

순창군 경연대회 개최
최우수상에 김희순씨
'된장 돈가스 소스' 영예

순창군이 옛 어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전통 가정식 발효소스 복원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맛 경연대회를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다. 가정식발효소스란 순창지역 일반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발효과정을 거쳐 만들어 쓰던 소스로 각 가정마다의 개성 있는 맛과 손맛이 담긴 양념 및 소스류를 총칭하는 말이다.군은 소스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창만의 독특한 맛이 담긴 소스를 찾고 대중화 하기 위해 가정식발효소스 육성에 나선 상태. 이와 관련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창 가정식 발효소스 발굴 경연대회'가 진행됐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사)한국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경연대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26개 팀이 각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던 비법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맛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활용한 가정식소스는 주로 장류, 식초, 발효액, 마걸리 등을 활용한 소스류가 주를 이뤘다. 심사는 전북대학교 이영숙 교수 및 소스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료배합, 맛, 창의성, 영양, 경제성 및 대중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된장 돈가스 소스'를 출품한 팔덕면 김희순씨에게 돌아갔다. 된장 돈가스소스는 화학조미료가 일체 사용되지 않은 전통 된장을 활용해 만든 소스로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돈가스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는 특성이 있다. 또 대중적 상품화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군은 이날 입상한 가정식 발효소스를 '순창 세계소스박람회'를 통해 기획전시하고 소비자 기호도조사 등 상품화 가능성도 타진해 볼 계획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대회는 각 가정에서 전해져 오는 발효소스를 발굴하고 순창군 소스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가정식 발효소스를 상품화에 대중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격식 타파 시골버스 소통 '이목집중'

순창군수, 군민목소리 경청

황숙주 순창군수(사진)가 새벽부터 군내 버스를 타고 군민들과 격 없는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21일 아침 6시 30분부터 인계면과 팔덕면 방향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군민들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의 시골버스 소통은 형식을 탈피해 일상 생활에서 군민들과 만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다. 지난 9월 6일 첫 버스 소통을 진행한 이후 이날 두 번째 소통의 시간이었다. 황 군수는 버스를 탄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생활에서 애로사항을 일일이 듣고 챙겼다. 또 이른 아침 등

교에 나선 학생들과도 대화하면서 격려했다. 이날 버스에서 군민들은 팔덕 신령마을 하천도로와 만나는 지점 반사경 설치, 승강장 시설 개선, 일자리 문제, 1000원버스 제도의 신속한 시행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황 군수에게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버스를 타고 군민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 느낄 수 없었던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듣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공간에서 격 없이 편하게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규제 개혁과제 발굴 추진

임실군은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 분야 등의 규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사례발굴과 행태개선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규제역량 강화교육, 추진상황 점검,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교통안전책 마련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2017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임실군이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군은 축제기간에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임시주차장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혼잡을 최소화하는 편리한 축제 만들기에 다각적인 도로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군에 따르면 4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31개 부서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주·정차 지도 및 셔틀버스 안내 현장에 투입된다. 또한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는 등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중년남성 '골드쿡' 호응

순창군이 남성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올바른 영양교육과 이에 맞는 식단을 실습하는 '남성을 위한 골드-쿡(Gold cook)' 과정 교육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돼 호응을 준비하는 남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교육에 전국에서 모인 34명이 참여했으며 백발에 남성이 뺨간 앞치마를 두르고 다양한 요리를 체험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실습 위주의 다양한 요리법을 배우고, 저명한 서울대 교수진을 초빙해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건강장수를 위한 식생활, 한식문화의 우수성과 저염식의 중요성 등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이션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